

Abutment Selection

조혜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연자 약력

1980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
 1990. 3~현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1993 미국 Tufts 치대 방문교수

임프란트지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지대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임프란트 고정체의 매식 위치(순설 혹은 근원심적 위치)와 각도, 폭경과 연조직의 두께, 고정체와 대합치 사이의 악간 거리, 교합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치부에서의 수복은 적절한 emergence profile과 심미성을 이루어주기 위해 매식 단계에서의 고정체의 위치와 직경, 연조직 두께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대주를 선택할 때에는 지대주의 색깔, 재료, 금속 지대주의 collar height, 각도, screw hole의 위치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대주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수복하려는 보철물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부분 무치악으로서 고정성 보철물을 수복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며 완전 무치악에서 오버덴츄를 하거나 hybrid 형의 보철물 혹은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는데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일치를 수복할 경우에는 antirotation device와 정밀한 토오크를 가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나사 유지형으로 수복할 것인지, 시멘트 유지형으로 수복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나사유지형의 가장 큰 장점은 retrievability이며 시멘트 유지형은 보다 단순한 제작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프란트 시스템은 Nobel Biocare, 3i Implant Innovations, ITI 시스템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임프란트 시스템마다 여러 가지 지대주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외과 및 치주과적 술식의 진보로 보다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임프란트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지대주의 필요성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보철물 제작에 있어 지대주의 올바른 선택은 성공의 관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